

담양군, 담양국민체육센터 현장점검 나서



담양군은 맞아 최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담양국민체육센터(담빛수영장, 담빛헬스장)의 시설을 점검했다.

담빛수영장, 담빛헬스장(샤워실, 수영조 등) 내부 시설 점검 “내부 시설 청결 관리 철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주문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 상황 및 내부 시설과 담빛헬스장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담양군수는 2일 현장을 방문해 시설 담당자들에게 “수영장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샤워실, 탈의실 등 수영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청소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곡성군, 6.25 전쟁 참전 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곡성군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 및 증서를 전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화랑무공훈장은 고(故) 김종권(9사단 28연대), 고(故) 김귀남(6사단 공병대대) 참전 용사에게 전달됐다. 훈장 전수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전수된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수여되는 무공훈장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후손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에 힘쓸 것이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예찰 활동 강화

구례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스피커를 이용해 상수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드론을 활용해 상수원보호구역 전 지역을 감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행위 발생 시 방송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하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야외 취사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등 상수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존 설치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과 표주 등 시설물 정비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선정

건설과 '농로 포장 민원 해결', 농업축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장성군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군은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건을 최종 확정했다. 상반기 우수사례는 △농로 포장 민원 해결 및 사업예산 절감(건설과)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농업축산과)이다. 첫 번째 사례는 '농로 포장 민원 해결'이다.

민원인이 오래 전부터 농로 포장을 요청했지만 생활권역이 장성을 벗어나는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 농로 포장 구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민원 해결은 물론 사업비까지 줄이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두 번째 사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장성군은 농작업 시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몽골 4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영농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 지속사도 건립한다. 장성군은 이 같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해 SNS와 전국 시군 구에 홍보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나주시 “축산농가, 여름철 연이은 폭염에 이렇게 관리하세요” 당부

그늘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나주시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가축 사양 및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한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그늘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 △지속적인 환기 및 송풍팬 가동 △신선한 물과 사료 제공 △농장 정기적 소독 실시 등 철저한 가축 사양관리를 당부했다. 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 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축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집중



나주시는 축산농가에게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축산농가에서도 적정사육두수 유지, 축사 내 송풍기 가동, 그늘막 설치, 신선한 물 공급 등 가축 사양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화순군은 지난 8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회에 걸쳐 총 1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